

호세아서는 12 권의 소先知서 중에서 첫번째 나오는 책이다. 대선지서 소先知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양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10 지파들에게 보냄을 받고 북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이었던 여로보암 2 세 때에 예언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산 사람들로서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 등이 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라고 불리워진다. 호세아서의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자의 치유자, 회복자 이시고, 하늘의 신랑이시다.

I. 제목

호세아서는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고대의 히브리 저술가들은 소先知자들의 저술들을 한 책으로 간주했다. 소先知자들의 시대는 그 특성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사회적 악 등의 정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확실하고도 중요한 교훈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다 (렘 42:1; 43:2).

II. 저자와 기록 연대

호세아의 가족에 대하여는 그의 예언의 서두에서 소개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선지자의 부친의 이름이 브에리 (히. Beeri, 나의 우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호세아의 말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가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하며, 그가 그곳에서 그의 일을 하였다는 사실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 있다. 기록연대는 여로보암 2 세의 통치 말기인 주전 755 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 주전 723 년 경으로 본다. 따라서 주전 723 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III. 호세아의 기본 구성

호세아서는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증거한다. 내용은 1)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1-3 장) 과 2) 타락한 북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4-14 장) 으로 나눈다. 또한 1)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은 (1)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 (1 장), (2) 방탕한 고멜 (2 장), (3) 고멜의 회복 (3 장) 이다. 또한 2) 타락한 북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은 (1) 타락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과 회개의 촉구 (4-13 장), (2) 북이스라엘의 회복예언 (14 장) 으로 나눈다. 호세아가 증거한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IV. 역사적 배경

호세아가 예언했던 때의 통치 기간들은 웃시야 (790-739), 요담 (750-731), 아하스 (735-715) 그리고 히스기야 (729-686) 왕들의 통치기간이다. 이들은 모두 유다의 왕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여로보암 2 세 (793-753)때 이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였던 때, 곧 나라가 앗시리아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의 때에 살았다. 호세아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은 북방 왕국(이스라엘)의 최후의 멸망이 있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여로보암 11세하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호 2:8)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번성하고 성공적인 나라이었다. 이 나라의 북쪽 국경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국경에 맞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영광은 이 나라 백성의 내적인 도덕적, 영적 쇠퇴를 드러낼 뿐이었다. 정치적 무정부 상태와 실정이 그 당시의 상태였다. 왕들은 그들의 선조들을 시해함으로써 왕위를 차지하였고, 그들도 차례로 시해되었다. 살룸은 사가랴를, 므나헴은 살룸을, 베가는 므나헴의 아들 베가히야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베가를 살해했다.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의 이름만 언급하고 그의 후계자들의 이름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수치스러운 무정부 상태 때문이었거나(호 1:1; 7:5; 8:4), 또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 남방 유다로 가버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으로 여로보암 1세 (왕상 12장)가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이 송아지 숭배는 후에 더욱 노골적이고 비인간적인 바알과 아세다롯 숭배로의 문호를 개방하였을 것인데, 그들에게 드러진 이 제사는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소름이 끼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되었고, 그 추잡한 육욕적 부패는 실로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V. 호세아서의 주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릇된 길로 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호세아가 가족 생활을 통하여 겪은 경험들, 정결치 못한 그의 아내에 대한 호세아 자신의 마음의 느낌들은 호세아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얼핏 보게 하였다. 북방 왕국의 전율할 만한 악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악은 더욱 짙어만 보인다. 호세아는 백성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만일 그들이 악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무서운 복수를 가장 어두운 색깔로 그리고 있다. 이 경고들은 위협이 아니고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의 책을 통하여 곁길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뜻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회개하라는 호소로 채워져 있고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기별이 담겨져 있다.

- 1)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기인한다 (행 15:11)
- 2)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한다.

VI.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

- 2)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되실 그리스도 (1:11)

VII. 호세아서의 핵심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 2) 핵심 절 : 6:3; 10:12
- 3) 핵심 장 : 제 4 장